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11】

冬土와 荊棘의 세월

▲ 1995년 10월 12일 22년 전에 별세한 모친을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이장하던 날의 고 김봉년씨.

김시현의 1930년대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안동대 교수 김희곤은 ‘ 김시현의 항일투쟁과 그 성격 ’이라는 논문의 4장 ‘ 조선혁명정치군사간부학교 활동과 밀정 처단 ’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23년에 의열단이 국내로 대량의 무기를 반입시키는 공작을 맡은 책임자가 김시현이었다. 서울까지 들여온 무기가 일제의 탐지망에 걸려 실패하고 그도 붙들린 뒤 10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김시현이 대구형무소에서 출옥한 때는 1929년 1월 29일이었다. 김시현은 바로 망명하였다. 그리고서 그의 이름이 독립운동 선상에 다시 나타난 시점은 1932년이었다. 즉 의열단이 남경에 설립한 조선혁명정치군사간부학교라는 이름의 군관학교 운영에 그의 존재가 드러났던 것이다. 오랜 옥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꺾이지 않은 그의 투쟁의지와 자세를 보여준다.

의열단은 1925년부터 성격이 확연하게 바뀌었다. 의열투쟁만으로 독립을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장차 군대를 육성하여 독립전쟁을 펼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핵심간부들이 광동성廣東省 광주廣州에 문을 연 황포군관학교黃浦軍官學校에 입학하고 초급장교로 육성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원봉金元鳳을 비롯한 핵심인물이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하였고 특히 무장봉기에도 참가하였다. 김원봉은 상해를 걸쳐 북경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일제가 만주滿洲를 침공하기 앞서 그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수도로 정착한 남경으로 이동했고, 황포군관학교 4기 동기생들의 도움을 받아 남경南京 근교에 조선혁명정치군사간부학교朝鮮革命政治軍事幹部學校라는 군관학교를 세웠다. 그것이 바로 1932년 10월이었다.

이후 의열단은 1935년 9월까지 3년 넘는 기간 초급장교를 육성하였다. 1기 26명, 2기 55명, 3기 44명 등 125명이 그들이다. 학교의 정식 명칭은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제6대대인데 이처럼 정식명칭이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소속 훈련대로 쓰게 된 이유는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라는 명칭은 황포군관학교의 정식명칭 국민혁명군중앙군사정치학교國民革命軍中央軍事政治學校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군사간부학교 설립은 한중연합공작으로서 대표적인 결실이라 할만하다.

1932년 6,7월에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지원이 확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32년 9월에 의열단은 제6차 정기대회를 열고 ‘ 한중합작으로 군관학교를 설립하여 조선혁명당 조직에 필요한 전위투사를 양성한다 ’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것은 의열단이 1928년 11월의 창립 9주년 기념 선언문에서 ‘ 개인폭력 중심 노선에서 전투적 협동전선 ’으로 전환하겠다던 방침과 연속선상에서 이해된다. 간부학교 설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 한국의 절대독립과 만주국의 탈환 ’이었다. 그리고 졸업생의 향후 활동방침은 국내와 만주지역에 파견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 일만요인日滿要人의 암살、재만항일단체在滿抗日團體와의 제휴、선만鮮滿 노동농민층에 대한 혁명적 준비 공작、위조지폐 남발을 통한 만주국滿洲國의 경제교란、특무활동에 의한 물자획득 ’ 등 다섯가지였다.

김시현에게 군사간부학교 소식을 알려주고 동참을 권한 인물은 당시 천진공과대학天津工科大學에서 영문학英文學을 가르치고 있던 김규식金奎植이었다. 이미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인연도 있고, 의열단이라는 틀안에서 주고받은 정서도 있었다. 김규식은 중국 국민당정부의 지원으로 남경에 군사간부학교를 세운다는 내용을 말하고 남경을 다녀오라고 권했다. 이에 김시현은 선뜻 찬성하고 김규식과 더불어 상해를 거쳐 남경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김원봉과 논의한 결과, 김시현은 생도를 확보할 초모관招募官 역할을 맡기로 약속하였다.

군사간부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도 모집이 관건이었다. 따라서 비밀리에 생도를 모집하기 위한 전방 공작거점이 필요했다. 김시현의 존재는 바로 그 선두에 있었다. 그가 담당할 구역은 북경北京을 중심으로 삼고 국내와 만주、화북華北 및 화중華中 지역이라는 넓은 곳이었다. 그가 실제로 북경에서 남경으로 신입생도 요원을 동행하여 연결시킨 사례가 있다. 안동安東 출신 이육사李陸史가 바로 그다. 이육사가 처남 안병철과 군사간부학교 1기생 26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입교하였다. 그런데 그가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남경의 북쪽 건너편 포구역浦口驛에 도착했는데 그 일행은 김시현을 비롯하여 윤세주、이육사、안병철 등 4명이었던 것이다. 포구역에 마중나온 인물은 이범석李範奭이었고 일행이 장강長江을 건너 김원봉을 만났다. 이어서 김시현이 대동했던 이육사를 비롯한 세 사람은 모두 군사간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게 되었다. 이처럼 김시현은 북경에서 생도를 확보하고 이를 남경으로 옮겨 장차 군사간부를 육성해내는 데 기여했다.

김시현은 의열단의 주요 간부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군사간부학교 1기생이 졸업한 뒤 의열단 지도부 대표자격으로 1933년 6월말 남경에서 열린 의열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틀에 걸쳐 열린 회의는 남경 교외에 자리잡은 효릉孝陵 근처 어느 사원에서 중국국민정부 군사훈련반 제5대의 교관, 그리고 김시현을 비롯한 4명의 지방출석단원, 1기 졸업생 가운데 18명이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김시현은 김원봉을 비롯한 7명의 중앙집행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김시현이 남경 시절 의열단 간부로서 펼친 활동에는 배반자를 처단하는 일도 있었다. 1933년 북경지역에 군사간부학교 1기생으로 졸업한 한삭평韓朔平(일명 박준빈朴俊彬)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었는데, 김시현은 그가 변절하여 밀정密偵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한삭평은 앞서 남경에서 열린 의열단 전체회의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논의될 정도로 동기생 가운데 신망이 높았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조사와 평가는 무척 조심스런 일이었다. 그 결과 김시현의 판단이 옳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제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한삭평이 ‘ 재귀순再歸順하여 ’ 첩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기록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김시현의 판단이 정확했음을 증명한다. 특히 한삭평이 재귀순했다는 점은 이미 그 전에도 일제에 투항한 적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같은 기록에는 김시현이 한삭평에게 밀정 혐의를 두고 처단하려 한다는 기미를 알아채고서 ‘ 자수했다 ’고 기록하기도 했다.

김시현은 그를 제거하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1934년 10월 그는 한삭평을 처단하기 위해 나섰다. 황포군관학교 4기생이자 당시 군사간부학교 교관이던 노을룡盧乙龍(노일룡盧一龍)과 다른 한 명의 요원을 대동하고 그는 북경으로 갔다. 김시현을 비롯한 일행은 일경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준비를 거쳐 마침내 한삭평을 처단했다. 그러나 배반자 처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제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다.

1929년에 대구형무소를 나온 지 6년만에 그는 다시 구금생활을 시작했다. 1935년 2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 5년을 언도받은 그는 일본 나가사키長崎형무소에 송치되어 옥고를 치렀다. 4년 7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감옥에서 보낸 그는 1939년 9월 8일 나가사키형무소에서 출감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그 이듬해 1월 서울로 돌아와서 4월 북경으로 건너갔다. 또다시 활동 공간을 쫓아가는, 결코 꺾이지 않는 불굴의 걸음이었다.

김희곤 교수의 기술에서 김시현이 의열단의 7인 중앙집행위원의 1인이었다는 것, 일제의 밀정 한삭평이 의열단의 중앙집행위원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된다. 그러나 김시현이 북경에서 한삭평을 처단한 일로 체포되어, 북경에는 일본의 사법기관이 없어 그 본국 나가사키로 송치되어 그곳에서 예심과 본심 공판을 받고 5년을 복역한 것으로 김시현의 전기에서는 기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김희곤의 기술에서는 북경에서 서울의 경성지방법원에 송치되었고 경성지법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은 일본 나가사키형무소에서 한 것으로 나오니 엇갈린다.

권애라가 70세가 된 1967년에 별세한 남편 김시현의 뒤를 이어 안동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한 주간지에 난 회견기사에서, 이 무렵의 지난 일에 대하여 기자와 권애라는 다음과 같이 문답하고 있다.

—결혼은 그러니까 이역만리 모스크바에서의 연애결혼이었겠군요.

권여사는 주름진 얼굴을 약간 붉혔다. “ 우리집 할아버지(김시현)가 형무소에 들어 있을 때 면회를 가서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에는 쟁쟁한 젊은이도 많았는데 왜 하필 당신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독립운동이 중신하지 않았나고 하시더군요. ”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참 김시현옹과 만나게 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었습니까.

“ 글쎄요. 그분의 물불 가리지 않고 실천하려는 강직한 성격이 젊은 마음에 공명이 갔습니다. ”

—그 이외는 무슨 공명이 가는 점은 없었습니까.

“ 네. 제가 톨스토이의 책을 좀 좋아했어요. 그곳으로 가기 전에는 부활復活의 카추샤의 운명에 눈물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저가 본고장인 모스크바에 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회의가 쉬는 하루, 40리쯤 떨어진 톨스토이 말년의 집을 찾아 문호의 생애를 더듬어본 일이 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제정 러셔의 귀족이 신념에 따라 바랑을 지고 나왔다는 순교 정신이 그 초라한 서재의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것도 같아 잠시 발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재의 입구에서 저와 똑같은 동양인 남자 한 사람과 부딪쳤거든요. 그이가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때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북국의 한 겨울이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우리는 러셔 사람 마부가 끄는 말 두 마리의 썰매 마차를 타고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

숙소로 돌아왔어도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썰매말의 요령소리며 러셔인 마부의 뜻도 모르는 고함이며 눈속의 휘파람소리가 잊혀지지 않았다.

권여사는 이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공산혁명 후의 스산한 모스크바의 눈덮인 들을 함께 달린 젊은 투사 김시현씨의 이미지가 따뜻한 체온과 함께 개성처녀의 가슴을 술렁이게 했는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젊었다. 공통된 목적이 있었다. 조국의 독립, 그것을 위해 시베리아의 황야를 넘어 이국의 수도에서 뭇백성의 틈에 끼여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사랑은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 모스크바의 루쿠스궁宮에서 동지 몇몇 사람이 축복해주는 가운데 간소한 식을 올렸습니다. ”

—그곳에서 살림을 했습니까.

15면으로 계속